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승만경 ④

본래 갖춘 여래장 개발하라

'진실한 가르침 펴겠다' 삼대원 세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공통적인 것이 수계라고 한다면, 소승불교에서는 서원을 세우는 일은 없다. 내면적으로 계를 받고 난 뒤 다시 밖을 향해서 서원을 세워 이타행(利他行)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특색이다.

◇삼대원장(三大願章)

승만부인은 다시 세 가지 큰 서원을 세우는데, 삼대원이란 차차 수행을 쌓아가서 마침내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실행하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조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가지 서원은 ①진실된 가르침을 아는 지혜를 추구하겠으며, ②그 지혜를 얻는다면 게을리하는 일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된 가르침을 일러주고 교화하겠다, ③진실된 가르침을 지니게 되는 데에 즈음하여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진실된 가르침을 호지(護持)하겠다는 것 등이다.

부처님은 승만부인이 세 가지 서원을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보살의 서원이 모두 이 세 가지 서원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섭수정법장(攝受正法章)

앞의 십대수나 삼대원에도 그 끝에서는 '섭수정법(攝受正法)'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섭수정법이란 곧 부처님의 정법을 잘 이해하고 믿어 그것을 잘 실행하는 것이다. 승만부인은 부처님께 섭수정법의 공덕을 설명하고 진실된 가르침은 그야말로 가르침을 몸에 지니는 일(攝受正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사뢰고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섭수의 정법과 섭수정법자는 정법과 다르지 않으며 섭수정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법은 즉 섭수정법인 것입니다."

섭수정법은 보살이 행하는 여섯 가지 실천행(六波羅蜜) 바로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라는 실천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일승장(一乘章)

정법(正法)이란,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바를 털어놓아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이 곧 대승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에는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불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밝혀, 소승이라는 것은 요컨대 대승에 들어가는 단계로서 소승만 배우고 그만두게 되면 모처럼 불법을 배운 보람이 없음을 밝혀서 반드시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권하는 것이다. 이 일승장이 〈승만경〉의 중심이다.

◇무변성제장(無邊聖諦章)

제(諦)란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라는 말인데, 소승에서 보인 성제(聖諦)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소승은 아직 진정한 성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성제는 대승이라는 것이다. 대승의 가르치심은 절대의 진리를 보여주신 것으로서 이 가르치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것을 무변(無邊)의 성제라고 하고 그 가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하고 있는 장이다.

◇여래장장(如來藏章)

부처님의 성제라는 것은 무엇을 근본으로 하여 설하신 것인가 하면, 그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여래장(如來藏)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여래장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심을 설하는 것이고, 이 대목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설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는 여래의 씨앗에 물을 주어 키우는 것이고, 그 여래장이라고 하는 불씨에 점화하는 것이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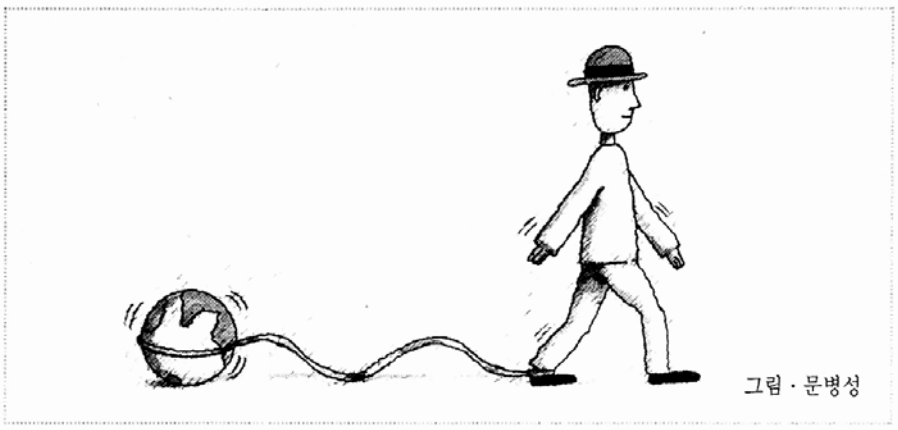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나의 인연 어디까지일까

불교와 과학 〈14〉

안 보이는 암흑물질 우주 90% 차지

돌·나무·알수없는 존재도 인연 해당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는 왜 태양에 달라붙지도 않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는 일정한 궤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지,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태양과 지구가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만유인력법칙 자체가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에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 태양 쪽으로 조금만 기울게 된다면 여지없이 태양 인력에 끌려 태양과 충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궤도에서 태양 반대쪽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태양계의 미아가 되고 만다. 그래서 결국은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어느 일정 공간 안에 서로 모여 있다면 그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결국은 그들 모두가 충돌하여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들은 모두 서로 더 떨어지게 되어 끝내는 분산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은하계가 모여 있는 우주 공간에 적용해본다면 우리의 우주가 확산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별들이 서로 모여 있다면 끝내는 은하계가 축소할 것이고, 별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은하계는 확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 공간 안에서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는 것이 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그런 별들만이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을 천체물리학자들은 암흑물질(dark matter)이라고 부른다.

인연의 타래

얼토당토않게 암흑물질이란 존재를 왜 필요로 할까? 60년대 츠비키라는 물리학자는 우리의 은하단이 우주공간 안에서 자체 회전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동력학적 평형상태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존재하는 별들만 갖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별들 말고도 다른 존재 방식의 질량을 갖는 물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생각은 70년대 말 루빈의 나선은하 속도 관찰을 통해서 확인되었는데, 이런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물질들의 질량의 합은 우주 전체 질량의 90%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물질은 전체의 1/10에 그치고 마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암흑물질의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즉 암흑물질이 일정 공간에 몰려 있다면 우주는 축소하고 말 것이며, 널리 퍼져 있다면 우주는 확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암흑물질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도 암흑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질의 세계가 아닌 삶의 공간에서 볼 때, 암흑물질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나의 인연을 지배한다는 말과 비슷하다. 나의 인연은 나 아닌 다른 존재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나 아닌 타자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속한 가계의 선조와 친지들, 내가 속한 사회의 친구들과 이익집단의 구성원들만이 나 아닌 타자의 모두인가를 반성해야 한다. 저 산 위의 상수리나무,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개울의 돌멩이들, 몇 십 년만의 처음이라고 떠드는 눈송이들, 모두 나 아닌 타자의 범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책상 위에 쌓이는 먼지와 들에 피어 아무도 보지 않는 꽃대에 붙은 잔털들, 맑게 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살들 모두 타자의 한 구성원이다. 그것말고도 내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이란 아주 적은 한 구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의 암흑물질들 모두가 나의 인연을 꿰어가는 우주적 관계의 타래들이다.

보이는 물질에만 나의 인연의 끈을 찾는다면, 내 연분은 왜 이 정도밖에 안될까라는 자조와 인과율이 맞지 않는 현생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생활 속에서 업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대부분 거대한 운명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자조적인 분위기를 띄고 그 말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보이는 물질에 국한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쉽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삶의 암흑물질에 섭동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이미 부처의 마음에 많이 근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에이즈 환자 돌보다 스님들도 병균 감염

지구촌 불교 / 불교와 에이즈

미얀마·태국 사찰 에이즈방역 곤혹

샤론스톤 등 모금·예방캠페인 눈길

불교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지난해 12월 1일을 기점으로 '뉴욕타임즈'나 'AP통신'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유엔이 지난해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 날'로 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 탓도 있겠지만, 불교 국가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가 에이즈 환자와 보균자의 밀집 지역이라는 점도 언론을 부추기는데 적잖은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보고서는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중국 등에서의 에이즈 확산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다고 지적했다.

◇단기출가 희망자의 머리를 삭발하는 태국의 스님.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타임즈'(지난해 11월 14일자)의 "미얀마와 태국의 스님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는 보도는, 에이즈라는 문제를 불교계가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뉴욕타임즈'에서 밝히고 있는 스님의 에이즈 감염은 일반인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에이즈 증세의 악화로 사경을 헤매며 사찰을 찾아온 환자들을 경내에 모두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단기 출가를 희망하며 사찰을 찾은 사람들의 머리를 삭발한 칼을 스님들이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이즈라는 병을 앓고 있는 중생이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에이즈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 헌신하고 있는 세계적인 불자 스타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리처드 기어는 미국 MBC 방송의 에이즈 예방 캠페인 프로 '생존'에 출연, 에이즈 환자들의 참상을 담은 다큐멘타리 해설자로 나섰다. '원초적 본능'의 섹시 스타 샤론 스톤 역시 '전미에이즈연구재단(AMFAR)'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공헌한 점을 평가받아 여성지 〈글래머〉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에 선정됐다.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 출연한 아일랜드 배우 리엄 니슨은 제작진과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광선검'을 경매에 내놓아 에이즈 바이러스의 태아전염 예방활동을 벌이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이 경매에는 줄리아 로버츠, 멜 깁슨 등 다른 불자 스타들도 소품들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미얀마 여성 지도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는 "에이즈 환자가 집중된 나라들에 대한 지구촌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불자 스타들의 노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아시아 스스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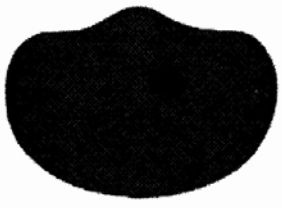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인터넷 불교쇼핑 마하몰 신년 특선 상품전 www.mahamall.co.kr 02)732-1522

108 나한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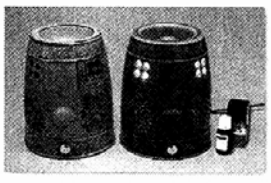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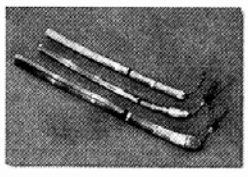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90,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죽 비



뿌리죽비(대) 25,000원
뿌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뿌리 大, 뿌리 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 (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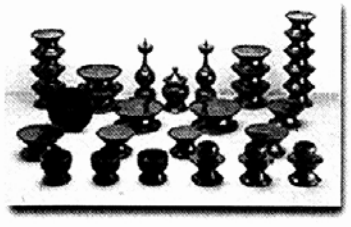
전통 개량 한복(남성용)

· 남성용 (소 재 : 폴리)
· 색 상 : 진회색 검곤색 붉은밤색
· 사이즈 : L / XL · 가 격 : 49,000원

연꽃 불자시계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 남성용.여성용 각각 :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원 동천목(孝)제기



· 재 질 : 지리산오리목 · 가 격 : 203,000원
· 구 성 : 촛대2, 탕기3, 술잔3, 술잔받침대3, 나물그릇3, 편기2, 적기2, 큰접시4, 중간접시5, 작은접시6, 지방틀, 어틀, 편틀, 향로 + 제례서식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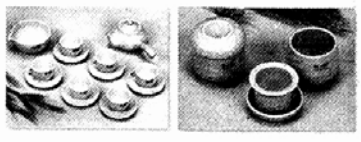
성묘용이동식(휴대용)제기

· 구성 : 중간접시3, 작은접시3, 탕기2, 술잔2, 술잔받침대2 + 성묘용제기함 + 휴대용가방
· 재질 : 지리산 오리목
· 가격 : 88,000원

제기함

· 규격 : 58Cm × 42Cm × 48Cm
· 가격 : 75,000원

옥산가 ® 춘천옥 ® 다기 상품



· 옥(玉) 개인다기
구성 : 찻잔(2p) 거름기(2p) 찻잔받침(2p)
가격 : 70,000원
· 옥(玉) 다기세트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가격 : 330,000원

왕사성의 비극

비디오 (1시간35분) 책 포함 가격 : 20,000원
부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물가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